## 박경철의 '오디세이아'

# 민주주의 기존 가치 고려해야

그리스에서 교통요금 인상을 둘러싼 큰 논쟁이 있었다. 대부분의 기차·시외버스·지하철 등이 국영기업인 그리스가 재정위기에 빠지자, IMF와 EU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교통요금 인상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구제금융을 주는 쪽에서는 정확한 포인트를 짚은 것이다.

공공요금, 특히 교통부분의 적자가 그리스 재정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금융은 다른 나라가 그리스 국민의 공공요금을 보전해주는 결과가 된다.

원래 이런 점들이 구제금융 조건의 주요 포인트다. 떼일 각오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이 제대로 쓰여 언젠가 돌려받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 정도가 과해서 빌린 쪽의 재기가 불가능한 쪽으로 몰고가서도 안된다. 구제금융이 시행될 때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대개 이 부분이다.

한데 그리스는 공공요금 특히 교통요금 인상을 완강히 거부했다. 일부 의원들은 극단적으로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빌려주는 쪽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었다.

그리스가 이런 터무니 없는 버티기를 계속한 이유는 우리 예측과는 좀 다르다. 경기가 불황일 때 부자들은 메르세데스를 타면 되지만, 가난한 이들은 이동에 제한을 받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의 사고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교통요금을 더 내려야지, 반대로 올린다는 것은 빈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 여기는 것이다.

이런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 국가의 관점에서는 전자가 옳은 선택이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후자가 옳다. 이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결국 자신들의 몫이다.

사형제도도 그렇다. 지구상에 사형제도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본거지인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여전히 사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파키스탄 역시 한동안 사형을 시행하지 않다가 테러 이후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이번에 끔찍한 테러의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이 테러범을 사형시킨다는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한데 적지않은 사람들이 파키스탄의 테러범 사형을 반대한다. 이유는 파키스탄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미 수천 명에 이르고 그중 몇명은 분명 정치적 이유나 다른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테러범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국가폭력이 다른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킬 것에 대한 걱정에 있다. 이렇듯 이면을 보면 단순하지 않은 것이 제도다. 이 때문에 국가나 사회제도는 다소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기본가치를 건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법을 충분히 공부하고 법리에 밝은 헌법재판관들이 긴 시간의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법리상의 문제는 없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강대강 대치를 하는 분단국가에서 북한의 혁명이론과 동조하는 정당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다. 충분히 옳은 생각이고, 좌든 우든 대개 통진당의 실제 노선이 그와 비슷하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한다.

그 이유는 민주적 가치 때문이다. 통진당의 노선이 그릇되고 해석에 따라 이적성을 띠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정당이라는 결사체를 국가가 해체한다는 것이 또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마음이 들지 않는 정당이 있을 경우 공권력이 해체를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존 가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듯 내용은 다르지만 세가지 사안의 기본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세가지 모두 현실적 요구와 필요, 그리고 가치와 명분사이에서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선택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는가? 피상적인 호불호가 아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엄밀한 성찰과 숙고가 필요하다.

〈지식나눔네트워크 대표〉

## 社 說

# 세밑 저소득계층에 사랑과 관심 가져야

광주지역 많은 저소득층이 공공요금을 내지 못해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내고 있다. 도시가스는 물론 전기료, 상수도료까지 체납하는 서민이 크게 늘고, 세밑 온정의 손길은 줄고 있다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해양도시가스에 따르면 이달 현재 광주에서만 무려 1만7000세대(체납액 18억원)가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2200세대는 이미 가스 공급이 끊긴 상태라고 한다.

전기요금 체납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달 현재 7만 세대(60억9900만 원)가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0세대는 최소 전력만을 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올 상수도 요금 체납액도 18억3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3300만 원 늘었다.

가난 때문에 한계상황까지 내몰리면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불우이웃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유난히 서민들의 슬픔과 고통이 많았던 한 해였다. 경기 침체에다 일자리는 찾기 어렵고 가계 빚은 쌓여가면서 힘겹게 지내는 소외계층이 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빈부의 양극화는 그만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밑 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작은 것도 함께 나누는 이웃사랑이다. 불우이웃을 위해 나누는 기부나 봉사활동은 참으로 아름답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은 크게 줄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광주지역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액만 하더라도 해마다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구호물품을 전달해온 익명의 기부 행렬도 찾기 어렵다. '빈자일등'(貧者一燈)이라고 물질을 나누는 것은 많고 적음보다 정성이 중요하다. 모두가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온정의 불씨를 살려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내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 5월 단체 사분오열, 공법단체 무산되다니

5·18 유족회와 5·18 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 등 3개 단체를 하나로 묶어 화합과 대동의 단일단체로 만들려는 5·18 공법단체 설립이 무산됐다. 5월 단체들이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때문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5·18 유족회는 공법단체 설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상자회는 단체별로 공법단체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한다. 구속부상자회는 뜻을 같이하는 두 단체 일부 회원들과 함께 단독으로 공법단체를 설립할 계획이다.

5월 단체는 지난 2008년 "5·18 정신 계승의 실질적인 주체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공법단체 설립 추진을 선언했으나 대의원 수와 정관 제정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어 6년 넘게 표류해왔다. 또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와 5·18 기념재단 이사장 선출 문제에 있어서도 대립각을 세우는 등 파열음만 내왔다.

5월 단체들이 하나의 단체로 거듭나 5·18 기념행사는 물론 5월 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염원했던 지역민의 뜻을 외면한 것이다. 시민들이 과거와는 달리 5월 단체에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다.

공법단체 등록이 이뤄지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합법적인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5월 단체의 재정 개선은 물론 5·18 정신 계승사업이나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기득권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제 발등을 찍는 격'이 아닐 수 없다. 5·18은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한국 민주화의 초석으로서 광주,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의 정신적 자산이 돼야 한다. 하나로 통합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도 눈치만 보면서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종교칼럼

# 은혜 아님이 없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서 문 성
원불교 산수교당 주임교무

며칠 전 눈이 많이 내렸다. 우리 교당 정원 나뭇가지에 수북이 쌓인 눈을 보면서 유난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리는 눈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동창 교무가 온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많은 눈이 내렸는데 친구가 멀리서 찾아온다니 참으로 반가웠다. 기다리던 동창 교무가 눈길을 헤치고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잠도 같이 자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었다.

필자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익산에 있는 원불교 총부에 회의가 있어 출발해야했다. 그래서 동창 교무 차를 타고 익산으로 향했다. 동창 교무는 차에 대해서는 프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어떻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정도였다. 운전도 곧잘 한다. 그런 그가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제 저녁까지 눈이 내렸지만 고속도로가 그렇게까지 미끄럽지는 않았다. 다른 차들은 옆으로 잘도 달렸다. 갑갑할 정도였다.

장성 '갈재'를 지나 정읍 인근까지 가니 고속도로 바닥은 말라 있었다. 그는 그때부터 평소와 같이 차를 운전했다. 동창 교무가 운전하는 것을 보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조심할 때는 참으로 조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아갈 때 나아가고, 멈출 때 멈추고, 조심할 때 조심하는 것이 참으로 프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의 운전습관과 비교하며 많은 것을 다시 생각했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원불교 총부에서 회의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원불교신문을 보는데 광고에 나와 있는 글귀가 눈에 쏙 들어왔다. '구(求)하라, 원(願)하라, 힘쓰라'는 글귀 아래 '세 가지 되어지는 진리'라고 쓰여 있었다.

지난 1년을 살면서 아침이 되니 일어나 기도하고, 밥 먹고 생활을 하면서 일상성에 빠져 살지나 않았는지 반성을 하게 됐다.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원하고, 온 힘을 다했는지를 돌아봤다. 목표를 세우고 가다 보면 되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돌아보니 되어 진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핑계, 즉 이유가 참으로 많았다. 1년을 돌아보면서 피식 웃었다. 오늘 소중한 글귀와의 만남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했다.

며칠 전 교도님들에게 감사 일기를 쓰면 좋겠다고 했다. 일기장에 쓰면 좋지만 일기장이 아니어도 좋다고 했다. 일기장에 쓰던 어디에 쓰던 먼저 자신의 마음에 감사 일기를 쓰면 좋겠다고 했다.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감사하고,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감사하고, 누가 나에게 경계를 주면 경계를 주어서 감사하고, 은혜를 주면 은혜를 주워서 감사하고,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작은 힘이나마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속상한 기념으로 감사한 일을 찾아보자고 했다.

이 세상이 은혜 아님이 없고, 감사 아님이 없는데 감사한 일보다는 원망의 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살지나 않았나 돌아보자고 했다. 눈앞의 작은 어려움과 원망이 큰 은혜와 감사를 묻어 버리고 살아가지나 않나 싶다고 했다.

우리가 생존한다는 것은 많은 은혜의 덩어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은혜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깝게 해야 할 단어다.

친구이며, 도반이며, 이웃이다. 필자가 이렇게 은혜니, 감사니, 어쩌니하면 속 모르는 소리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또한 감사 아닌가. 온천지 모두가 은혜 아님이 어디 있으며 감사 아님이 어디 있던가.

## 기 고

# 건강관리 하면서 살자

김 수 홍
전 송원대 교수

건강은 우리 생활 최후 목적인 동시에 보배이며 큰 자산이다. 건강은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행복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기건강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한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자로 '健康'은 자기신체를 건전하게 하고 마음이 편하게 한다는 뜻이고, 한글로 '건강'은 고괭이와 호미로 땅을 일궈낸다는 뜻이며, 영어로 'Health'는 원래 Heal=The Sick과 같이 완전하게 고친다는 의미로 'Th' 접미어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

흔히 재산을 잃으면 다시 찾을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다시 찾게 되나 건강을 잃으면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최근 한국 건강단체 등의 통계치에 의하면 우리 평균수명을 78세로 상향 발표하고 있다.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24%가 노인(65세)시대가 도래한다고 한다. 세계 최대 장수국인 일본의 건강단체는 암 예방 9개 지침을 전국에 발표하며 건강관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염분의 과소 섭취, 육류 소량 먹기, 신선한 야채와 과일 섭취, 콩·감자 섭취, 유산균, 해조류, 버섯류 섭취, 벌꿀레몬 섭취,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 섭취, 생수 권장, 금연, 금주령까지 권장하고 있다. 매일 유산소 운동인 수영, 자전거타기, 등산을 적극 장려한다. 운동을 계속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안의 나쁜 독소 등을 뽑아내어 체지방이 크게 감소한다. 이는 곧 우리 몸 전체를 유연하게 하고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암 발병의 근본적인 원인 등을 차단케 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도 이웃 일본과 같이 100세 장수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국민 모두가 새벽 조깅에서 수영, 자전거, 등산 등 각종 운동기구를 통해 건강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연령대별 발병원인을 최근 발표했다. 20~35세까지 고혈압, 콜레스테롤. 36~60세까지 심장병, 당뇨병, 각종 암 발생. 61~70세 이상 골다공증,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병 등을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요즘 우리 국민은 시계조차 볼 여유도 없이 세월 흐름에 자기를 잃고 바쁘게 살다 보니 자기 건강관리는 뒷전이다. 아무리 자기 생업이 바쁘지만 자기건강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필자도 50세까지만 해도 건강만 믿고 무심코 살았다. 57세 때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져 3분 이상 걸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 척추전문병원을 찾았다. 상담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돼 장시간 수술을 받기도 했다. 입원치료 기간 동안 평소 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 지금도 병원을 찾아 예방치료를 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진을 받는 등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척추는 집의 대들보 같이 목에서 엉덩이까지 총 33개 마디로 구성돼 우리 몸 전체를 떠받치고 있다. 전문의들은 일생에 한두 번은 척추에 이상이 찾아올 수 있다고 귀띔한다.

우리 신체 모든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척추이상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매일 맨손체조 등 목과 팔다리, 허리 등을 골고루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건강을 위한 올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 개인을 위한 작은 실천이 가정과 사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 겨울철 스키장 안전사고 주의해야

무주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내 스키장들이 개장을 하면서 본격적인 겨울 스키 시즌이 시작됐다. 스키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를 잡으며 주말이면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 현상으로 몇몇 스키장들의 경우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주말에 이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같이 급증하는 스키인구와 함께 안전사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스키가 빠른 속도로 스피드를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사고 시 크게 다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무감각한게 사실이다.

스키장을 가보면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슬로프를 이용한다든지 헬멧과 같은 안전보호 장비 없이 스키를 즐긴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스포츠는 자신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 하는 것인 만큼 스키를 즐기기 위해서도 정해져 있는 안전규칙과 안전보호구 등의 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나 자신의 안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겨울철 스키장 안전사고에 주의 해야 한다.

▲최경환·광주서부경찰서 기동순찰대

## 無 等 鼓

# 염소 선물하기

난데없이 염소를 선물하게 됐다. 그것도 생전 처음 들어본 저 먼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솜퉁고 마을에 암염소를 보내게 된 사연은 이렇다.

며칠 전 20년 지기 지인의 출판기념회에 다녀왔다. 별을 좇는 한 사내의 자전적 이야기는 한번 손에 잡으면 놓기 힘들 정도로 흥미로웠다. 책 속에 등장하는, 그를 둘러싼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영감을 주고, 힘이 되는 이들이었다. 부러웠다. 대부분 출판 기념회가 그렇듯 작은 봉투를 두고 나왔다.

행사 며칠 뒤 문자 한 통을 받았다. 기념회를 주관한 이들(책 속 등장 인물들)의 감사 문자였다. 덧붙여 수익금 전액은 월드비전을 통해 암염소를 보내는 후원금으로 기부했다는 소식도 담겨 있었다. 그러고 보니 표지에 적힌 책 가격이 '암염소 한 마리'였던 게 생각났다.

'염소 보내기'가 궁금해 인터넷을 클릭했다. 염소 한 마리를 지원받은 방글라데시 산토나 마하토씨의 사연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2011년 염소 한 마리를 지원받았다. 사육법을 교육받은 후 염소를 열 두마리까지 늘렸고 세 마리를 팔아 땅을 임대해 농사를 지었다. 네 마리는 남편이 운전할 릭샤를 구입했다. 남편이 하루 2800원~4200원을 버는 덕에 하루 한 끼만 먹던 가족들은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녀는 아들을 의사나 기술자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 지원받을 때 약속한 대로 이웃 소나모니씨에게 염소 한 마리를 나눠줬다. 그도 염소를 12마리로 늘렸고, 일부를 팔아 어린 암소와 릭샤를 샀다.

한 해가 다 저물어가지만 주변의 이웃을 돌아본 기억이 없다. 구세군 냄비에 동전 한 푼 넣지 못했다. 얼떨결에 염소를 전달하게 돼 기분이 좋다. 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둔 덕분이다. 정말 근사한 크리스 선물이었다. 내가 보낸 염소 몇마리가 솜퉁고 마을 꼬마의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조금은 행복할 것 같다.

사람들 대신 선물 꾸러미를 꾸리는 이들이 또 있다. 29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빵 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에 가보자.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그림도 감상할 수 있다. 더불어 북한 아이들이 먹을 빵을 만드는 데 힘을 더할 수 있다. 로비에 놓인 모금함에 작은 정성을 보태면 된다.

/김미은 문화1부장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
| 편집국안내 |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 〈대표 FAX 222-4918〉 | 경제부 2200-632 | 〈FAX 222-8005〉 | 〈FAX 222-0195〉 |
| 편집부 2200-649 | 문화생활부 2200-661 | 광고마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정치부 2200-642 | 여론매체부 2200-696 | 〈FAX 227-9500〉 | 〈FAX 227-9500〉 |
| 〈대표 FAX 222-4918〉 | 체육부 2200-697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사회부 2200-663 | 사진부 2200-693 | 프로젝트팀 2200-555 | 〈FAX 02-773-9335〉 |
| 〈대표 FAX 222-4267〉 | 조사부 2200-571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